

질병치료의 개념

김건열 / 서울의대 내과교수, 서울대보건의료소장

“
 의사에게 병을 고쳐내라는
 치유의 시대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건강을 지키는 가료의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모두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가꾸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70세이상 장수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오늘의 현대사회에서는 성인병, 노인병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또 이들 고년령층에서의 건강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환자 자신이나 국가복지정책면에서나 중요한 「잇슈」가 되고 있는 것 만은 확실하다.

특히 신생아출산율의 감소와 상대적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성인병, 노인병을 앓고 있는 고령인구의 건강문제, 재활문제, 사회참여 유도문제 등은 그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어떻게 정책개발이나 사회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그나라, 그지역사회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60세이상 고령인구가 되면 누구나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심신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연령증가에 따른 생리적 퇴화과정인 질병으로 인한 기능저하이던 팔, 다리, 허리가 아프고 움직이면 숨이차고 기억력, 시력, 청력이 떨어지고 위장기능도 전만 못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육체적인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외로움, 답답함, 소외감, 좌절감, 우울증 등이 병발하게 마련이며 이런 여러 가지 심신의 증상이 어디까지가 병적과정이고 어디까지가 연령증가에 따른 병이 아닌 생리적 퇴화과정인지의 구별이 어려울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50세이상 고령이 되면 누구나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동맥경화증, 퇴행성 관절염, 기관지염, 폐기종, 위염(기능적 및 만성) 등이 연령증가와 더불어 생길 수 있으며 어떤 검사종목을 진단목적으로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병이 진단이 되고 안되기도 한

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의 인구가 경증고혈압, 경증당뇨병 경증뇌·심장순환부전, 경증간염, 경증장염, 경증퇴행성관절염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 질병에대한 관리와 치료, 재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전국민 개인보험시대에 들어가면서 병의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시장터같이 붐비는 기현상을 만들고 있지만 각기 개별환자에게 주어져야 할 올바른 건강교육, 재활요법 등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약이나 먹고 있으면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약제를 과신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병은 성인병, 만성병, 노인병인 경우 약으로 치료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CURE: 치유)에 앞서 「질병을 다스린다」(CARE)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하며 일단 생긴 질병은 식사습관, 생활습관, 금연, 절주 등의 개선이 없는 한 다시 재발하게 마련이어서, 의사나 약에 의존하는 것 보다 자기자신이 해야할 일이 더 많고 중요한 것이 성인병, 노인병의 현주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동맥경화증은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뇌혈관장애의 근본원인이 되지만 이 동맥경화증과 「콜레스테롤」(혈청지질)이 높은 경우 스스로의 식사조절, 운동요법 없이 약에 의존해서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전연 성공에 불가능한 접근방법이며, 약의 복용에 앞서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군이라 할 수 있다. 또 연령증가와 더불어 생기는 만성폐

색성 폐질환군,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은 그 원인이 흡연과 대기오염에 있으므로 금연과 생활환경의 정화없이는 치료방법이 없는 질환이며 무슨 약을 복용하여 모면할 수 있는 질환군이 아니다. 그 밖에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등도 같은 부류의 질환으로서 「치유(CURE)가 아니라 「가료(CARE)의 개념으로서 일생 병을 다스리면서 병에 나쁘다는 것은 하지 말고 병과 슬기롭게 공존공생하는 슬기가 필요한 만성질환군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병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생활양식, 생활습관이 필요하며 내몸에 생긴병을 의사와 약이 고쳐주려니 기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현대의 성인병의 질병역학이 달라지고 있어 환자 자신이 보는 질병의 개념도 바꾸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폐결핵, 폐염, 맹장염, 신우염 등 세균성질환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항생제선택으로서 의사가 치료해주는 질환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질환은 대학병원환자중 점점 그 비율이 적어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환자자신이 치료해야 되고 노력해야할 만성성인병, 퇴행성질환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의사에게 병을 고쳐내라는 치유의 시대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건강을 지키는 가료의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모두 인식하고 올바른 건강지식과 생활가꾸기에 노력하고 계을 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마약없는 건강사회
범죄없는 우리사회